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I AM NOT A NUMBER

가제 : 날 숫자로 부르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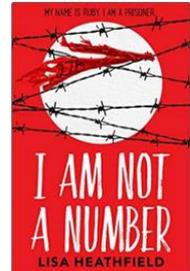
저자 : Lisa Heathfield

출판사: Electric Monkey

발행일: 2019년 6월 27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체코,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태국 판권 계약

\* 「Seed」, 「Paper Butterflies」로 주목 받고 있는 작가의 인상적인 신작

영망이 된 세상을 바로 잡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전통당은 그렇게 약속했다. 불안정한 사회를 어떻게, 누가 회복시킬 것인지를 두고 전통당과 핵심당이 벌인 경쟁은 국민 투표를 거쳐 전통당의 승리로 판가름이 났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누리게 해주겠다고 확고한 다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더 이상의 혼란과 변화가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은 핵심당이 강조해온 자유보다 전통당의 안정을 택했다. 그러나 3개월 뒤, 그들이 약속했던 안정은 뜻밖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파고든다. 입을 수 있는 옷과 없는 옷에 관한 규칙이 정해진 것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더 이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길거리에는 허리춤에 총을 매단 군인들이 깔리고 학교마다 교문 앞에 똑같이 총을 든 군인들이 등교하는 아이들의 머리 모양과 옷차림, 신발을 단속했다.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새로 마련되면서,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다. 루비는 단 몇 개월 만에 벌어진 이 어이없는 변화가 놀라웠지만 일단 눈에 총을 든 군인이 수시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석기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단속과 억압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루비의 우려는 생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왔다. 불쾌한 복장 단속은 계속되어도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어지던 어느 날, 전통당 소속 정치인이 예고없이 루비의 학교에 찾아와 200명 남짓한 8학년생 전체를 예정된 수업 대신 강당에 모이라고 호출했다. 교장 선생님도 미처 알지 못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그는 숨죽이고 지켜보는 아이들 앞에 커다란 상자 두 개를 가지고 왔다. 상자 하나에는 전통당을 상징하는 초록색 완장이, 다른 하나에는 핵심당을 상징하는 보라색 완장이 들어 있었다. 자신을 전통당 당수인 존 앤드류스의 대행인이라고 소개한 이 정치인은

루비를 비롯한 아이들에게 한 명씩 나와서 ‘자유롭게’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완장을 골라야 하며, 이제 앞으로 어디를 가든 완장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모님이 어느 당에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리석게도’ 핵심당을 선택했다고 해서 자식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법은 없으며 친한 친구들의 의견도 다 무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로지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당을 택하라는 그의 부드러운 말투는 바로 곁에 총을 매고 서 있는 군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루비는 남자친구 루크의 옆에서 조용히 떨면서 평소 전통당에 관심도 없고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던 친구들이 이 차갑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전통당 완장을 고르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물론 강압적인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보라색을 택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루비도, 루크도 그 몇 안 되는 핵심당 지지자에 포함됐다. 하지만 학교까지 찾아와 노골적인 편가르기로 삼시간에 아이들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놓은 이 조치는 시작에 불과했다.

상식을 벗어난 전통당의 압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루비의 양아버지, 루크의 부모님을 비롯한 반대파 지지자들은 비인간적인 권력 행사를 중단하라며 시위를 시작했다. 그 결과는 예상대로 처참했다. 정해진 규칙과 법률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포로수용소로 끌려간 것이다. 루비 역시 엄마와 양아버지, 여동생 릴리와 함께 체포되어 기본적인 소지품조차 챙기지 못한 채 죄인처럼 집과 멀리 떨어진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온 ‘반동분자’들은 이름도 지워졌다. 간수들이 붙인 번호만으로 구분될 뿐, 하루 빨리 ‘병든’ 생각을 바로잡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환자 취급을 받아야 했다. 루비는 276번이 되었다.

도망칠 수도 없고 24시간 엄격한 감시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정신 교육을 받는 동안, 루비는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지만 그럴수록 속에서 더 강렬한 불길이 타올랐다. 행동과 옷차림, 해야 할 일들은 억지로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루비의 내면, 진짜 생각과 마음은 루비 자신 외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임을 더 확실히 깨달은 것이다. 276번은 내 이름이 아니라고, 내 이름은 루비 웨스트라고 씬 없이 되뇌며 루비는 노예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다. 루크를 비롯해 함께 끌려온 같은 학교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전통당이 자행하는 이 끔찍한 범죄 행위를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던 루비는 정신 교화를 핑계로 이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 수십 년 전,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용되던 원시적인 방법인 뇌엽절제술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멀쩡한 사람들의 머리에 전기 자극을 주거나 정상적인 사고에 꼭 필요한 부위를 절제하여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동성애자 등 이들의 기준에 ‘중증’ 환자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더 혹독한 수술이 강제로 이루어졌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루비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쨌게든 벗어나려는 루비의 몸부림은 의도치 않게 수용소 전체가 불타는 대형 화재로 번지고,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이 다시 시작된다. 자유의 가치, 정체성의 의미를 날카롭게 파헤친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리사 히스필드(Lisa Heathfield)는 중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다가 책을 쓰기 시작했다. 데뷔 소설 『Seed』로 2016년 워터스톤스 아동 도서상 결승과 브랜포드보스 상 후보에 올랐고, 두 번째 소설 『Paper Butterflies』로 2017년 YA 도서상 결승에 올랐다.

제목 : HEARTS STRINGS AND OTHER BREAKABLE THINGS

가제 : 에디의 맨스필드 파크

저자 : Jacqueline Firkins

출판사: Houghton Mifflin Harcourt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9년 12월 17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제인 오스틴의 『맨스필드 파크』를 유쾌하고 신랄한 현대판 이야기로 탈바꿈한 매력적인 이야기**

유일한 가족이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3년간 위탁 가정을 전전하던 에디에게 7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이모가 찾아온다. 에디가 열 살 때, 엄마와 처음 놀러갔던 메사추세츠 맨스필드의 큰 저택이 새로운 ‘집’이 된 순간이었다. 앞으로 5개월, 에디가 열여덟 살이 되어 살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이모와 이모부, 사촌들과 함께 지내자는 이모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만 해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복잡하고 많기도 많은 입양 서류가 전부 오가고 소박한 짐 가방과 함께 맨스필드로 향하는 길에 이미 에디는 뭔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하는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참 말이 없는 이모부와 너무 말이 많은 이모는 지난 3년간 떠둔 에디를 얼른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맨스필드를 엄마와 함께 마지막으로 찾았을 때 두 자매는 대판 싸움을 벌였었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고 으르렁대며 헤어졌는데, 엄마의 그 다짐을 허락도 없이 갠 것 같아 괜히 마음이 불편했던 에디는 머리 모양부터 피부 상태, 옷차림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이모의 따발총 같은 잔소리에 내내 치솟는 짜증을 눌러야 했다. 마침내 도착한 맨스필드에는 또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촌 줄리아, 마리아까지 합세해서 ‘에디의 대변신’ 작전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다. 난생 처음 다녀보는 사립 학교와 제대로 독립하려면 반드시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덮친 가운데, 7년 전 열 살 꼬맹이 때 에디의 첫사랑이자 첫 키스 상대였던 세바스찬까지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 에디의 마음은 휘몰아치는 혼란 속에 빠져든다. 『엠마』, 『설득』과 함께 제인 오스틴이 후기에 남긴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맨스필드 파크』를 저자의 독창적인 위트와 유려한 글솜씨로 되살린 이 현대판 로맨스는 매력적인 여주인공 에디가 진정한 사랑을 찾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내밀한 감정과 생각을 시종일관 흡입력 있는 문장으로 생생하게 들려준다.

모든 것이 낯선 맨스필드에서 에디가 위안을 얻는 건 단 두 가지, 엄마가 유품으로 남긴 기타와 이제는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베스트프렌드 손다와 단 둘이서만 공유하는 SNS 계정이었다. 늘 노래를 부르고 만드는 순간을 가장 즐거워하던 엄마를 보면서 자라서인지 에디 역시 마음이 힘들거나 외로울 때는 음악에 기대면서 살았고 손다와는 아마추어 밴드를 함께 시작하면서 부쩍 가까워졌다. 하지만 순간적인 충동으로 에디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평생 가장 가까이 지냈던 소중한 친구와의 사이가 틀어져버렸고, 이제 맨스필드로 이사까지 오게 되면서 망가진 관계를 되돌릴 가능성

은 영 사라진 것 같았다. 그래도 에디는 포기하지 않고 SNS 계정에 수시로 들어가서 손다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라며 홀로 일기를 쓰듯 모든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게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꾸미고 사는 사촌 줄리아와 마리아가 우주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에디의 촌스럽고 애처로운 외모를 바꿔놓는 일인 것처럼 달려들고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이모의 성가신 잔소리가 짜증스러워도 안전한 집에 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천천히 적응해보기로 한 에디의 다짐은 세바스찬을 본 순간 단번에 풀어지고 말았다. 열 살 때 같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나무에 오르기도 하고 뒹굴며 놀던 소년이 도저히 눈을 떼지 못할 만큼 멋진 청년으로 자란 모습에 깜짝 놀란 에디는 다 잊은 줄 알았던 첫사랑의 감정이 순식간에 되살아난 것을 느낀다. 세바스찬 역시 에디를 크게 반기며 친근하게 대하지만, 에디는 끓어오르는 감정만큼 세바스찬에게 접근할 수는 없었다. 이모가 보내준 그 지역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몇 년째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온 남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클레어가 세바스찬의 여자친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케일에 심취한 이모가 끼니 때마다 반강제로 먹게 만드는 케일 샐러드처럼 입에도 안 맞고 성격에도 안 맞는 생활에 지쳐 기타 줄만 튕기던 에디 앞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온다. 또래들 사이에서 바람둥이로 소문이 자자한 헨리 크로포드가 에디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누가 봐도 매력적인 외모에 여자들에게 호감을 살 만한 행동만 쏙쏙 골라서 하는 헨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여학생은 거의 없었지만 에디는 아니었고, 헨리는 그런 에디에게 작정한 듯 들이댄다. 여자친구가 있으면서도 에디와 함께 있을 때면 분명 친구 이상의 감정을 드러내는 세바스찬의 애매모호한 태도나 남자친구를 만들어야 세상의 모든 고민이 해결될 것처럼 구는 사촌들의 정신 사나운 참견에 질려버린 에디는 에두르는 법 없이 곧장 표현하는 에디의 구애를 조금씩 받아들인다. 헨리의 관심이 한순간 지나가는 열정이거나 재미 삼아 건드려보는 것뿐이라는 불쾌한 수근거림이 에디의 귀에까지 들어왔지만 누가 봐도 천하의 바람둥이가 난생 처음으로 진짜 사랑에 빠진 모습으로 에디를 따라다니자 학교에서 물에 뜬 기름 같던 에디의 입지까지 올라간다. 졸업생 모두가 고대하던 졸업 무도회 날, 파트너가 되어 달라는 헨리의 요청을 수락한 에디는 모두의 시선이 쏠린 홀 한가운데서 그와 뜨거운 키스를 나누고, 처음으로 헨리에게 마음이 설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바스찬의 마음은 또 다른 이유로 요동치기 시작한다. 세바스찬과 대화를 나누면 사촌들에게도 차마 솔직히 꺼내지 못했던, 손다에게 저지른 바보 같은 실수까지 다 털어놓게 될 만큼 편하고 기대고 싶은 감정이 들고 헨리와 함께 있으면 돌아가신 엄마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드는 에디의 마음은 스스로도 종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 무엇이 진짜 사랑일까? 제인 오스틴의 원작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유머와 참신한 개성이 곁들여져 톡톡 튀는 새로운 이야기로 재탄생된 재미 있는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재클린 퍼킨스(Jacqueline Firkins)는 극작가, 각본가, 만화가로 무대, 코스튬 디자인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다. 현재 브리티시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문예 창작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